

주요 십진분류표에서의 보조표 비교분석 연구

-DDC, KDC, NDC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Study on Auxiliary Tables of Decimal Classification

- forced on DDC, KDC, NDC-

김정임, 남태우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Kim Jung-Yim & Nam Tae-Woo,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

본 연구는 주요 십진분류표(DDC, KDC, NDC)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조표의 기능을 분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동일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DDC, KDC, NDC의 보조표를 분석하고 여기에서 추론된 보조표의 기능을 KDC에 적용시켜보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특히 KDC 5판을 준비하는데 사전 자료적 성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DDC나 KDC 각각의 보조표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보조표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한 일본분류법(NDC)과의 비교분석은 현재 미비한 상태다.

그래서 본고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DDC라 약칭함)의 보조표와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한 NDC(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NDC라 약칭함)의 보조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KDC

(Korea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KDC라 약칭함)의 보조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KDC 보조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KDC 개정하는데 있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분류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보조표의 역할 및 기능

현대 자료 분류표의 체계는 일반적으로 본표와 보조표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분류표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조표는 본표의 기호들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열거식 분류표이든 조합식 분류표이든 현존하는 모든 주

제를 본표에 모두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표상에는 기본 주제와 이들의 하위주제들만을 열거해 놓고, 기본류나 하위류에 공통적으로 또는 특수한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별도의 표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들을 보조표라고 할 수 있다¹⁾. 분류표에서 이들 보조표를 채택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분류표의 외형적 부피를 감소시키고 표의 조직을 단순, 간결하게 하여 분류표의 이해 및 기억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랑가나단(1969)이 제창한 “분류표는 동일한 개념이 표상의 어디에 나타나더라도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여 개념을 표현해야 한다”는 일정적 조기성(Scheduled memonics)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2.2 주요 분류표의 보조표에 대한 변천과정

2.2.1 DDC의 보조표에 대한 변천과정

보조표가 분류표에 채택된 것은 DDC 2판(1885)에서 Dewey가 처음으로 각 류들을 합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형식구분(form division)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Dewey는 2판에서 형식구분, 지리구분 및 문학과 어학의 분야의 형식구분을 위해 사용하였고, 12판(1922)까지도 형식구분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13판에는 다양한 공통 세구분, 관점, 그리고 형식구분의 세 가지 범주를 나타내는 공통세

구분(common subdivisions)이라고 하고, 15판과 16판에는 다시 형식구분으로 사용하고, 17판에 와서 표준구분(standard subdivision)라는 명칭을 사용한 보조표가 되었다. 그리고 17판에는 형식구분과 지역 보조표(areas table), 문학과 어학의 형식구분을 사용하다가 18판 이후부터는 조합식의 성격을 갖고 조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7개의 보조표로 증가되었다. 이 18판의 보조표가 현재 사용중인 DDC 21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2.2.2 KDC의 보조표에 대한 변천과정

우리 나라 표준 분류표인 KDC가 1964년 탄생되기까지 가장 널리 사용된 대표적인 분류표로는 1947년에 박봉석씨가 창안한 조선십진분류표(KDC(P))를 들 수 있다.

그 후 1957년 연세대학교에서 도서관학과와 도서관학당이 설치되어 분류법의 교재로 DDC를 채택함으로써 많은 도서관들이 DDC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고, 또한 지속적인 개정과 증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 주제를 분류할 수 없었다는 점이 KDC(P)의 소멸을 가져왔다.

KDC(P)가 쇠퇴하고, 많은 도서관들이 수년에 걸쳐 DDC를 사용해 오는 동안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상당수의 부분을 체험한 결과 우리 나라 문화실정에 알맞은 분류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에 DDC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독자

1) 정해성, “분류표에서 사용하는 보조표에 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28호), 1998.

적인 표준분류표를 만들게 되었고, 1964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 1996년 현재까지 4판 발행에 이르게 되었다.

2.2.3 NDC의 보조표에 대한 변천과정²⁾

NDC는 Dewey가 창안한 십진방식을 도입하여, 이것을 일본의 도서관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도서관의 장서를 분류하기 위한 표와 그 관계자료이다.

발단은 1928년에 모리·키요시가 그 근무처인 도서관 용품전문점 「間宮(마미야)상점」의 업무참고용 도서의 장서 정리를 담당하여, 같은 장서를 분류하기에 적합한 분류표를 작성한 것으로 시작된다. 이 표는 일본 도서관의 장서에 어울리는 분류표를 의도하여 편성되었다. 間宮은 1929년 『일본십진분류법』으로 제목을 고치고,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NDC가 탄생하게 되었다.

일본도서관협회는 1948년에 NDC를 개인 저작으로부터 계승하고, 관계공동의 재산으로 하여 전후 일본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로 하였다. 원편자 모리를 중심으로 하는 분류위원회에서 1950년에 신정 6판, 1961년에 신정 7판, 그리고 1978년에 신정 8판을 간행하였다. 1986년 모리가 물러나고, 1980년대는 도서관에 있어서 문헌목록정보의 컴퓨터화가 진행된 시기였다. 1981년부터 기계가독목록(약칭MARC)형태의 전국도서

목록 JAPAN MARC의 일반 반포를 일본도서관협회를 가입시켜, 1989년에는 CD-ROM 형태의 J-BISC가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앞서 설명한 과정을 거쳐 일본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는 최근 9판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NDC는 종래의 제8판까지는 ‘조기표’였던 명칭을 제9판부터는 ‘보조표’로 바꾸고 그 아래에 형식구분, 지리구분, 언어구분(국어구분), 언어공통구분, 문학공통구분의 5개의 표를 두고 있다. 제9판은 종래의 판들보다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여 애매성을 적게 하는데 주력하여 보조표 전체와 각 표의 모두에 설명을 가하고 주기와 참조를 충분히 하고 있다.

3 DDC, KDC, NDC 보조표의 구성 및 특성분석

3.1 DDC 21판³⁾

DDC 21판의 보조표는 표준세구분표, 지역구분표, 문학형식구분표, 언어공통구분표, 국어구분표, 인종·민족·국가군 구분표, 인물구분표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보조표 별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3.1.1 제1보조표 표준세구분표 (Table 1 : Standard Subdivision)

2) 일본도서관협회, “일본십진분류법 신정 9판”, 1995

3) 오동근, “DDC 연구”, 태일사, 2001, p122-187

표준세구분표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① 표준세구분표는 대개 어떤 주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비본질적인 특성과 해당 문헌의 일차적인 주제보다는 오히려 문헌 자체에 관련된 비주제적 특성을 나타내 준다.
- ② 표준세구분표는 본표에 이 보조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시가 설정되어 있거나 이를 사용하면 중복되는 경우가 아니면, 토픽의 범위가 상세도에 관계없이 해당 분류 기호의 전체에 상당하는 모든 토픽의 분류 기호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세구분표는 공식적인 부가 지시 사항 없이 열거되거나 합성된 어느 주제에 대해서나 추가할 수 있다.
- ④ 표준세구분표의 기호는 최소한 두 자리로 구성되며, 항상 영(zero: 0)으로 시작된다. 이 영은 기본 주제 또는 해당 주제의 기본 요소로부터 두 번째 주제 또는 해당 주제의 두 번째 요소로 변경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이른바 패시 지시 기호의 역할을 한다.
- ⑥ 표준세구분표는 DDC의 다른 모든 기호들과 마찬가지로, 십진식으로 확장·전개될 수 있다.

3.1.2 제2보조표 지역·시대·인물 구분

표(Table 2 : Geographic areas, historical periods, persons 약칭 area table)

지역·시대·인물 구분표는 기본적으로 분류의 대상이 되는 문헌의 주제가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다루어질 때 그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위해 사용하기 위한 보조표이다.

지역구분표는 시대와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자연적 구분과 지리적 구분, 지구물리학적 구분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구분표의 기본적인 구분은 정치적이다⁴⁾. 그리고 영연방(the British Commonwealth), 제3세계 국가, 이슬람 지역 등과 같은 다른 종류의 개념적 구분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조표에서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와 주요국의 주(州)나 도(道), 주요 도시의 이름과 그에 대한 기호를 열거하고 있다. 그 결과 제2보조표는 사실상 DDC의 7개 보조표 가운데 가장 긴 보조표가 되고 있다.

3.1.3 제3보조표 문학형식구분표(Table 3 : Subdivisions for the arts, for individual literatures, for specific literary forms)

제3보조표인 문학형식구분은 기본적으로 특정 언어로 된 문학 작품이나 문학에 관련된 문헌들을 분류하기 위한 보조표이다. 다만 제21판부터는 이 보조표를 예술류의

4) Lois Mai Chan, et. a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A practical guide. 2nd ed." New York, Forest Press, 1996. p.111.

700.4와 791.4에도 지시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학형식구분표는 보조표 T.3A, T.3B, T.3C의 3개의 보조표로 구성되어 있다.

DDC의 문학류는 800에 분류된다. 그런데 이 문학류의 분류 기호들은 본표에 열거되는 경우보다는 문학형식구분표를 활용하여 합성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학류는 DDC의 주류 가운데 패시식 분류표(Faceted classification)적 성격이 가장 강한 주류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기호들은 개별 문학의 세구분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부가 주기(Add notes)에 따라 또는 810-890 아래에서 *으로 표시되어 있는 개별 문학에 대한 기본 기호(base numbers)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호들은 문학형식구분표의 기호를 추가하라는 지시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개별 문학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와 같은 문학의 작품이나 그와 같은 문학에 관한 문헌들은 언어 기호까지만 추가하면 된다⁵⁾.

T.3B는 둘 이상의 저자의 작품이나 둘 이상의 저자에 관한 문헌을 다룰 때 사용한다. 일차적으로 표준세구분표에 제시된 형식의 표준세구분 —01-07과 세구분 —08 및 —09에 따라 배열되고, 다음으로는 문학

형식 —1-8에 따라 배열된다. 세구분 —08은 원래 DDC 제18판까지는 표준세구분의 전집(collections)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보조표 3-B에서만 전집을 나타내는 세구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구분 —09는 제20판 이후 역사나 기술, 비평을 포함하도록 의미가 확장되었다. 세구분 —08과 —09는 표준세구분표의 기호나 보조표 T.3C 기호를 사용하여 추가로 전개할 수 있다.

T.3B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표로 둘 이상의 저자의 작품이나 둘 이상의 저자에 관한 문헌을 다룰 때 사용하기는 하지만, T.3B나 700.4, 791.4, 808-809에 사용지시가 되어 있을 경우만 사용하게 된다.

3.1.4 제4보조표 언어공통구분표(Table 4 : Subdivisions of individual languages and language families)

제4보조표 언어공통구분표는 400 언어류의 각국어의 공통적인 형식이나 특성에 대해 공통의 기호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언어류의 개별 언어와 어족을 나타내는 420부터 490의 주요 기호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이 보조표는 DDC의 보조표 가운데 구조와 적용면에서 가장 간단한 보조표이다⁶⁾.

이 기호들은 개별 언어나 어족의 세구분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부가 주기(add

5) Melvil Dewey. "Dewey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st ed." New York: Forest Press, 1996. Vol. 1. p.405.

6) Lois Mai Chan et. a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 practical guide. 2nd ed." New York Forest Press, 1996. p151.

notes)에 따라 또는 400-490 아래에서 *으로 표시되어 있는 개별 언어에 대한 기본 기호(base numbers)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보조표를 사용하면 언어류의 기호 합성은 상당히 용이해지게 된다. 이 보조표에는 언어학의 여러 요소들과 문체, 그 밖의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언어공통구분표를 적용할 때는 특히 -5와 -8의 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5는 문법에 관한 포괄적인 저작과 기술 문법(記述文法 : descriptive grammar)에 대해 사용하고 -8은 규범 문법(規範文法: prescriptive grammar)에 대해 사용한다⁷⁾.

기술문법은 어느 한 언어의 특정 시기의 언어나 문법 현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문법이다.

규범 문법은 언어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언어 사용상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규칙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문법으로,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학습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문법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언어 학습을 위한 교재류는 모두가 -8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5 제5보조표 인종·민족·국가군 구분표(Table 5 : Subdivisions of racial,

ethnic, national groups)

제5보조표 인종·민족·국가군 구분표는 어떤 주제가 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가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을 때 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 보조표의 기호들은 일반적으로 본표의 부가 지시 사항(add instructions)에 따라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세구분표(T. 1)의 -089 인종·민족·국가군 기호를 앞세워 추가할 수도 있다. 특히 표준세구분표의 기호는 본표의 지시에 관계없이 모든 분류 기호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089와 결합할 경우에 인종·민족·국가군 구분표의 기호들은 사실상 이에 관련된 모든 기호에 추가할 수 있다.

인종·민족·국가군 구분표에서 “민족군”(ethnic group)은 대개 언어적 결속력을 가진 집단을 말하지만, 문화적 결속력이나 인종적 결속력을 가진 집단을 의미할 수도 있다⁸⁾.

한편, “-03 기본 인종”의 기호는 인종을 아주 광범위하게 다룰 경우에 한해, 백인종(Caucasian race:-034)과 몽골 인종(Mongoloid race :-035), 흑인종(Negro race :-036)에 대해 사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1-9에 설정되어 있는 해당 인종에 대한 각각의 기호를 사용한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종만을 대상으로 하

7) Sydney W. Davis & Gregory R. New. “Abridged 13 workbook : For small libraries using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bridged edition 13”. New York : Forest Press, 1997. p.37

8) Lois Mai Chan et. a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 practical guide. 2nd ed.” New York Forest Press, 1996. p.167.

는 저작의 경우는, —96을 사용해야 한다.

3.1.6 제6보조표 국어구분표(Table 6 : Subdivisions of languages)

제6보조표 국어구분표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가 해당 주제의 특정 언어적 측면을 다루고 있을 때 해당 언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어구분표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490과 890에서 개별 언어와 개별 문학의 기호를 합성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⁹⁾. 이 밖에도 국어 구분표는 본표와 보조표 전반에 걸쳐 다용한 기호들과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국어구분표는 어족에 따라 그룹화된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과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구분표의 기본적인 개요는 400 언어류 및 800 문학류의 개요와 조기성을 갖는다. 그러나 각 언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의 세구분은 언어류와 문학류의 세구분과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언어류의 영어에 대한 기본 기호(base number)는 42이고, 문학류의 영어에 대한 기본 기호는 82이지만, 국어구분표의 영어에 대한 기호는 —2가 아니라, —21이다.

3.1.7 제7보조표 인물군구분표(Table 7 : Subdivisions of Groups of persons)

제7보조표 인물군구분표는 어떤 주제가 특정 연령이나 성별, 계층, 직업 등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을 때 이를 나타내기 위해 상용된다. 이 보조표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표준세구분표 —024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제와 —088 직업 집단 및 종교 집단에 관련된 역사와 기술(記述) 아래에서 세구분을 제공하는 것이다¹⁰⁾.

이 보조표의 기호들은 일반적으로 본표의 부가 지시 사항(add instructions)에 따라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살펴본 표준세구분표의 —024나 —088을 앞세워 추가할 수도 있다.

특히 표준세구분표의 기호는 본표의 지시에 관계없이 모든 분류 기호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024나 —088와 결합할 경우에 인물군구분표의 기호들은 사실상 이에 관련된 모든 기호에 추가할 수 있다.

인물군구분표는 두 개의 기본 범주로 구성된다. 하나는 사람을 성별과 혈연관계, 연령, 사회, 경제, 신체, 정신, 그 밖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범주화한 것으로, —01-09로 표시된다. 다른 하나는 사람을 그 주제 분야나 전문 지식, 직업 등으로 범주화한

9) Lois Mai Chan et. a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 practical guide. 2nd ed." New York Forest Press, 1996. p156.
 10) Lois Mai Chan et. a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 practical guide. 2nd ed." New York Forest Press, 1996. p.173
 11) Lois Mai Chan et. a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 practical guide. 2nd ed.", New York Forest Press, 1996. p.178.

것으로, —091-097과 —1-9로 표시된다.

인물군구분표의 —1-9에 해당하는 구분은 본표의 주류 100-900의 강(綱)의 전개와 조기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등한 전개는 제7보조표의 확인이나 식별에 도움을 준다¹¹⁾.

3.2 KDC 4판

KDC에서는 주제의 합성을 위해 많은 부분에서 조기성의 기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이른바 체계적 조기성(Systematic mnemonics) 또는 일정적(一定的) 조기성 내지 표에 의한 조기성(Scheduled mnemonics)의 기법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조기표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도, KDC에서는 본표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 기호를 해당 분류 기호에 직접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조기성을 부여하는 이른바 주제구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¹²⁾.

KDC 제 4판의 조기표는 ①표준구분표, ②지역구분표, ③한국지역구분표, ④한국시대구분표, ⑤국어구분표, ⑥문학형식구분표, ⑦언어공통구분표, ⑧종교공통구분표로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①,②,⑤,⑥, ⑦은 DDC 21판과 공통되는 부분으로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KDC 4판만이 가지고 있는 ③한국지역구분표,④한국시대구분표, ⑧

종교공통구분표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한다.

3.2.1 한국지역구분표

한국지역구분표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가 한국의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을 때 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기표이다. 그러나 분류표에 별도의 조기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본표의 911.1-.99와 같이 구분하도록 지시하고 있을 뿐이다¹³⁾.

한국지역구분표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구분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구분표의 기본적인 구분은 전국 시도 구분이다. 한국지역구분표는 본표나 다른 조기표에 지시된 지역구분표의 부가 주기에 따라 해당 분류 기호가 추가된다.

3.2.2 한국시대구분표

시대구분이란 역사류 내의 각국의 시대 구분을 역사 이외의 주제의 시대 구분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¹⁴⁾. 한국시대구분표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가 한국의 특정 시기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을 때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 조기표의 기호들은 일반적으로 “0”을 수반하고 있다. 제4조기표인 한국시대구분표는 조기표에 실제 항목이 전개되어 있지 않고, 본표의 911.01-.077에 제시된 항목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12)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공저, “KDC의 이해”, 태일사, 2002, p.36.

13)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공저, “KDC의 이해”, 2002, 태일사, p.77

14) 김명옥, “자료분류법”, 구미무역, 1976, p174.

따라 한국시대구분표의 개요를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시대구분표는 우리나라의 왕조적 구분과 시대적 구분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지역구분표는 본표나 다른 조기표에 지시된 지역구분표의 부가 주기에 따라 해당 분류 기호가 추가된다.

3.2.3 종교공통구분

조기성 부분에서 KDC가 DDC에 비해 특이한 점은 종교의 공통구분을 주었다는 점에 있다. 종교공통구분은 각 종교에 있어 특이한 주제나 의식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조기성을 갖는 기호를 부여하여 각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시킨 구분이다. 이것은 211-218 비교종교학을 구분한 요목을 근거로 해서 공통구분을 정리하였는데 각 종교마다 요목의 구분이 동일하므로 기억이 용이하며 필요에 따라 각 종교의 종파 또는 교파에도 적용시켜 세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⁵⁾.

3.3 NDC 9판

NDC 9판의 보조표 또한 DDC를 기본으로 하여 발행되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 NDC 9판은 형식구분, 지리구분, 해양구분, 언어구분언어공통구분, 문학공통구분로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형식구분은 DDC 21판의 표준세구분표와 같은 것으로 거의 유

사하지만 역사류를 표현하는 —09가 빠져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구분, 언어구분, 언어공통구분, 문학공통구분은 DDC 21판과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NDC 9판에만 존재하는 해양구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한다.

3.3.1 해양구분

해양구분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NDC에만 존재하는 보조표이다. 전체 40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해양과 관련된 자료를 분류하는데 도움을 준다. NDC 9판의 해양구분의 큰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태평양
- 2 북태평양
- 3 남태평양
- 4 인도양
- 5 대서양
- 6 지중해
- 7 북극해
- 8 남극해

3.4. 주요 분류표간의 보조표에 대한 비교분석

3.4.1 보조표의 구성

DDC 초판부터 합성의 원리와 사용의 간편함을 추구하기 위해 형식구분을 도입하였으며, DDC 제21판은 앞서 설명한 것과

15)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 1997, 12

같이 7개의 보조표로 이루어져있고 KDC 제4판은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NDC 제9

분표를 대신하였고 한국 시대 구분표는 한국의 시대사인 911.01-.077에서와 같이 구분

<표 1> KDC 4판과 DDC 21판, NDC 9판의 보조표 내용 비교

보조표의 구분 내용	KDC 4판	DDC 21판	NDC 9판
표준구분	표준구분표 (85항목)	T1. 표준세구분표 (196 항목)	형식구분세(29항목)
지역구분	지역구분표 (226항목)	T2. 지역, 시대, 인물구분표	지리구분((461항목)
특정국의 별도		T2. 지역, 시대, 인물구분표	
지역구분	한국지역구분표	해당 없음	해양구분(40항목)
특정국의 별도	한국시대구분표		해당없음
시대구분	한국시대구분표	T6. 언어구분표 (41항목)	언어구분(117항목)
각 언어구분	국어구분표 (8항목)	T3. 개별문학, 특정문학형식 구분표 (181항목)	문학공통구분(12항목)
문학형식구분	문학형식구분표(8항목)	T4. 개별 언어 및 어족 세구분표 (372 항목)	언어공통구분(9항목)
언어공통구분	언어공통구분표(8항목)	T7. 인물군 구분표	해당없음
인물구분	해당 없음	T5. 인종, 민족, 국가군 구분표	해당없음
인종구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종교구분	종교공통구분표(8항목)		해당없음

판의 6개의 보조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하도록 지사하여 독립된 각각의 보조표로 보기가 어렵다. ② 또한 DDC21판과 NDC 9판의 경우, 지역구분이 7개의 보조표 중 가장 방대하게 전개되어 있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반면에 KDC 4판은 국명의 전개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주제 표현의 한계가 크므로 조금은 더 상세한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③ 그리고 인물군에 관한 보조표의 부재로 인해 KDC 4판으로는 『Santa Claus』라는 자료를 분류한다면, 성탄절이라는 분류번호 밖에 줄 수 없으며 『학습부진아의 심리학적 연구』라는 주제를 적절하게 표현할 분류번호가 마땅치 않다. 그러므로 사람에 관한 공통보조표는 김자후(1998)가 지적했듯이 직업, 연령, 성별, 계층, 신분, 인종, 민족 등의 구분원리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 원리를 총망라하

4 KDC 4판의 보조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KDC 4판의 경우, 인물 및 인종에 대한 형식구분이 전혀 없는 대신에 DDC 21판과 NDC 9판에는 없는 종교구분과 한국 중심의 지역 및 시대 구분표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각 나라에서 개발되는 분류표는 자국 중심의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KDC 4판에서 한국의 지역 및 시대 구분표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① 그러나 한국의 각 지역 역사인 911.1-.99에서와 같이 지역 구분하도록 지시를 하는 것으로 한국 지역구

는 하나의 공통보조표를 조기성을 살려 추가한다면 자료의 다면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적합한 분류 번호의 부여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④ 또한 KDC 4판의 독창적인 종교 공통구분은 각 종교에 있는 주제나 의식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조기성을 갖는 기호를 부여하여 각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시킨 구분이다. 이는 각 종교마다 동일한 요목을 제공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각 종교의 종파나 교파에 적용시켜 세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종교 분야에서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공통구분표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¹⁶⁾. ⑤ 『태평양 해저 식물』이라는 자료를 분류한다면 '식물'밖에는 분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NDC 9판에 존재하는 해양구분의 보조표도 KDC에 개정판에 삽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결 론

지금까지 보조표의 기능 및 DDC 21판, KDC 4판, NDC 9판의 보조표에 대한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KDC 4판의 문제점과 그 대안방법을 강구하였다. 사실 DDC에 비해 KDC의 역사는 짧은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짧은 역사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작업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KDC 5판을 준비하는데

사전자료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옥, "자료분류법", 구미무역, 1976.
 김성원, "DDC 기호의 조기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김정소, "자료구분론", 계명대학교출판부, 1983.
 정해성, "분류표에서 사용하는 보조표에 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28호), 1998.
 오동근, "DDC 연구", 태일사, 2001.
 오동근, 배영활, 여지숙 공저, KDC의 이해, 태일사, 2002.
 일본도서관협회, "日本十進分類法 신정 9판", 1995.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 1997.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1996.
 Krishan Kumar,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rev. ed., New Delhi :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1981.
 Lois Mai Chan, et. a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A practical guide. 2nd ed." New York, Forest Press, 1996.
 Sydney W. Davis & Gregory R. New.

16) 정연경, "DDC 21과 KDC 4의 비교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관리학회지 제34권 제1호, 2000.

"Abridged 13 workbook : For small libraries using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bridged edition 13.", New York : Forest Press, 1997.